

이직률 Zero, 안전제일주의

(주)선우ENG(전남 광양)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끝없이 내리쬐는 햇빛에 가늘게 뜬 눈이 눈부시다. 태풍이 몰고 온 뭉게구름이 고맙게도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 환호라도 보내듯 매미울음소리가 진동하는 무더운 여름. 어떤 이는 휴가의 기대로 설레고, 어떤 이는 휴가에 대한 추억으로 흐뭇한 요즘이다. 나도 휴가라도 떠나는 마음으로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위치한 선우ENG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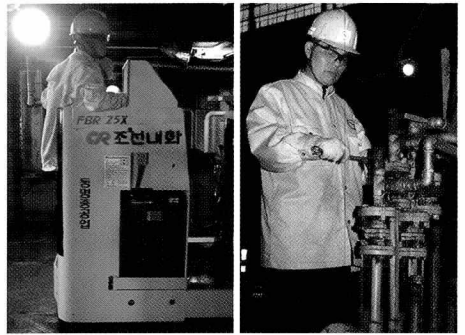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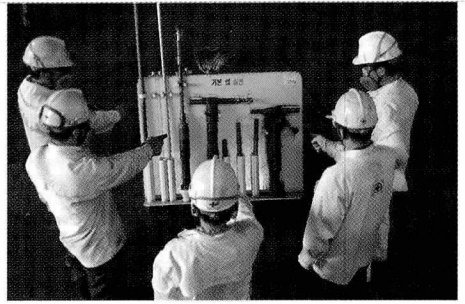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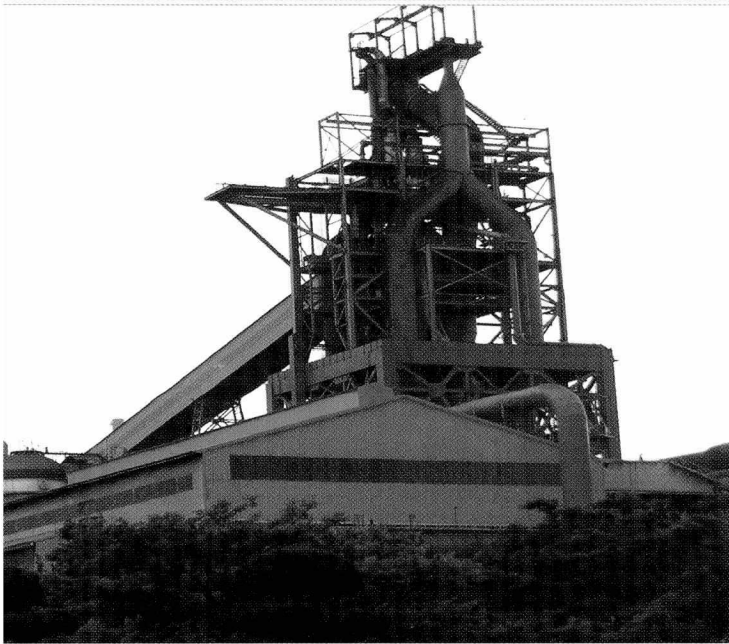
■ 안전을 필두로 한 제2의 창업, 선우

(주)선우ENG는 조선내화의 외주파트너사로 광양제철소의 고로(용광로)에서 생산되는 쇳물을 제강공정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설비(대탕도 및 Iron Runner, Slag Runner)에 시공되어 있는 각종 내화물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1986년 광양제철소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된 사업은 당시 제철소 내의 5개의 고로를 2개와 3개로 양

분되어 운영되어온 것을 2005년 7월 한 회사로 합치면서 선우ENG라는 이름으로 제2의 창업을 이루었다.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 나가고자 하는 대표이사의 경영마인드, 그 시작은 안전제일이다.

■ 근로자의 경조사를 직접 챙기는 박경업 대표이사

어느 기업에서나 마찬가지로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신념과 지원이다. 안전을 부수적인 개념이나 법적인 사항으로 치부하여 소홀히 여긴다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일하기 싫은 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2005년 7월, 선우ENG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박경업 사장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즉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것에는 심리적 불안요소가 크게 좌우한다는 것인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가정사에 대한 고민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연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박경업 사장은 모든 근로자들과의 다양한 루트를 통한 자연스런 대화로 소소(小小)한 가정 문제에서부터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히 메모하고 지속



적으로 해결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작업에 임하고 있는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파악하고 회사 차원에서 도움으로써 애사심 향상은 물론 불안정한 행동을 막는 것이 결국 안전으로 이어나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 1,500°C 이상의 고온 작업

선우ENG는 고로(용광로)에서 철광석이 환원되어 출선구를 통하여 용선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TLC(용선을 담아 제강공정까지 운반하는 300ton의 그릇)에 이르기까지 내화물로 시공되어 있는 탕도(대탕도) 및 Runner(Iron Runner, Slag Runner)에 대한 책임시공 및 유지보수를 작업공정으로 하고 있다. 한 개의 용광로에는 4개의 출선구가 있는데 하나의 출선구가 휴지상태가 되면 먼저 냉각을 실시한 후, 해체를 실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각 형틀을 취부하여 부정형 내화물을 혼련 시공한 후, 응고가 완료되면 형틀을 취외하고 COG Gas를 이용,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500°C가 넘는 고온의 용선을 생산하기 때문에 화상은 항상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근접작업자는 알루미늄 나 방열복을 착용하고 용광로 현장에 진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방열복 등 철저한 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작

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총 28개의 단위작업에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마다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 안전토론회 및 ILS


주 1회 열리는 안전토론회에서는 안전 총괄자를 비롯한 현장의 작업반장들이 참여하여 각자 맡고 있는 공정이나 작업에 어떠한 위험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발견된 위험요소의 제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그 내용들은 작업표준서에 반영된다.

철강업종과 설비 보수업종의 특성상 많은 장비의 운용과 중량물의 취급이 많아 그로 인한 협착, 충돌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량물 취급 5원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전하는 설비에 작업자가 협



작 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ILS(Isolation Locking System)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전 작업관련자 전원이 구동하는 설비의 중간 Valve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 Kit에 시건을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구동원을 차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일할 맛 나는 회사 만들기

선우ENG에는 볼링회, 족구회, 산악회, 축구회 등 4개의 사내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는 회사 방침의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여과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이직이 없다는 사실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일할 맛 나는 회사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 15일로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한 선우ENG, 앞으로 그 소중한 숫자가 하나씩 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